

량치차오의 『日本併呑朝鮮記』 연구*

최형욱**

<目 次>

1. 서론
2. 병탄 과정의 단계별 논의
3. 조선멸망의 내적 원인 비판
4. 일본의 침략행위 및 한중관계 변화에 대한 인식
5. 결론

1. 서론

중국 근대 維新派 계몽주의 대표 지식인 량치차오(梁啓超, 1873-1929)는 폭 넓고 깊이 있는 연구 성과를 방대한 저술로 남겼다. 그 대부분은 『飲冰室專集』·『飲冰室文集』¹⁾으로 묶여져 전하는데, 그 중에는 ‘조선’ 또는 ‘한국’²⁾을 키워

* 이 논문은 2014학년도 한양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한양대학교 중문과 교수.

- 1) 량치차오 저작의 총집으로 가장 보편적인 것은 이 둘을 묶은 『飲冰室合集』이다. 본고에서 사용한 판본은 上海 中華書局 1936年版을 影印한 北京 中華書局 1994年版 『飲冰室合集』 全12冊이다. 일부 저작은 이 『飲冰室合集』에 누락되어 있으나, 상당수 夏曉虹이 편집한 『飲冰室合集外文』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량치차오의 저작은 원래 대부분 언론매체에 발표했던 것들이며, 발표일자과 매체에 관한 내용은 李國俊이 편집한 『梁啓超著述繫年』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다. 량치차오의 논설을 인용할 때 함께 소개하고자 한다. 아울러 본고의 주 텍스트인 『日本併呑朝鮮記』를 비롯한 량치차오의 조선 관련 시문은 필자가 『량치차오, 조선의 망국을 기록하다』라는 서명으로 번역·출간한 바 있다.
- 2) 량치차오는 『日本併呑朝鮮記』의 記例에서, “본문에서 조선으로 칭하기도 하고 한국으로 칭하기도 하는데, 문장의 편의에 따른 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다.”라고 밝힌 바 있으며, 자신의 다른 저작들에서도 실제 두 호칭을 구분 없이 혼용했다. (『日本併呑朝鮮記』, 『國風報』 第22-23期, 1910.09.14.-09.24, 『飲冰室專集』之二十一, 1쪽.) 이하 본고 본문의 전개에서는

드로 하는 십여 종도 있다. 논설 형태로 「朝鮮亡國史略」(1904.9, 『新民叢報』), 「日本之朝鮮」(1905.1, 『新民叢報』), 「過去一年間世界大事記第六朝鮮之亡國」(1906.2, 『新民叢報』), 「嗚呼韓國嗚呼韓皇嗚呼韓民」(1907.10, 『政論』), 「日韓合併問題」(1910.7, 『國風報』), 「朝鮮滅亡之原因」(1910.9, 『國風報』), 「日本併吞朝鮮記」(1910.9, 『國風報』, 속편 포함), 「朝鮮貴族之將來」(1911.3, 『國風報』) 등이 있다. 이 밖에 시 작품으로 발표한 「秋風斷藤曲」(1909.10?), 「朝鮮哀詞」(1910.9, 『國風報』) 및 서문으로 써준 「麗韓十家文抄序」(1915.2) 등에서도 조선에 대한 관심을 적극 표출했다. 보이는 바와 같이 이 저작들은 대체로 1904년부터 1911년 사이 즉 일제가 본격적으로 조선을 강점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발표되었다. 제목만으로도 그의 조선에 대한 관심이 주로 조선의 멸망 문제에 치중해 있으며, 아울러 史的 記述이 중요함도 알 수 있다.

사실 량치차오는 史學에 전념한 사학자는 아니었지만 많은 중요한 史論들을 발표했고, 이를 통해 서양 근대사학의 이론을 소개하고 중국 新史學을 정립하는 이른바 ‘史界革命’을 주도했다. 「中國史序論」(1901)·「新史學」(1902)부터 『中國歷史研究法』(1922)·「中國歷史研究法補編」(1927)에 이르는 저작에서 역사는 “인류 진화의 현상을 서술하여 그 공리 공례를 구하는 것”³⁾으로, 인류사회의 지속적인 활동을 기록하고 나아가 그 진화를 인과관계로 설명함으로써 當代 일반인들에게 귀감이 되어야 하는 것이며, 특히 중국의 경우는 이로써 민중계몽을 이끌어 갈 수 있어야 한다는 논의를 펼쳤다.⁴⁾ 특히 그는 이러한 계몽주의 사학 중에서도 이른바 亡國史에 집중한 점이 두드러져 보이는데,⁵⁾ 이는 위의 조선 관련 저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위의 저작들 중에서도 조선의 멸망에 대한 전반적인 史的 記述로 볼 수 있는 것은 「朝鮮亡國史略」·「過去一年間世界大事記第六朝鮮之亡國」·「日本併吞朝

동일한 「日本併吞朝鮮記」를 반복적으로 참고하므로 일일이 주석을 달지 않으나, 인용문에는 정확한 출처 확인을 위해 주석을 단다.

3) 「新史學」, 『新民叢報』 第1-20號, 『飲冰室文集』之九, 10쪽.

4) 『中國歷史研究法』, 1922.01, 『飲冰室專集』之七十三 참고.

5) 「越南亡國史」를 대표 저작으로 꼽을 수 있다. (『越南亡國史』, 1905.10, 『飲冰室專集』之十九)

鮮記』이다. 나머지 것들은 조선과 관련된 부분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춘 비교적 짧은 편폭의 政論文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세 편의 논설 가운데서는 「朝鮮亡國史略」이 가장 많이 알려졌으나, 발표 시점이 1904년이었던 관계로 실제 한일 병합까지 다룰 수 없는 한계가 있다. 「過去一年間世界大事記第六朝鮮之亡國」 역시 1906년 발표되었으며, 「朝鮮亡國史略」과의 중복을 피해 주로 러일전쟁 전후기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반면에 「日本併吞朝鮮記」는 1910년 9월 발표되어 상대적으로 조선의 멸망에 대해 총체적으로 기술할 수 있었고, 내용면에서도 사실상의 두 논설을 종합한 성격을 기본으로 한 위에, 중국의 조선정책 및 조선과 중국의 관계 변화라는 측면에서도 문제를 다루어 상대적으로 가장 완전한 기록으로 여겨진다. 물론 편폭도 위 두 논설의 두 배 이상이 된다.⁶⁾

이러한 가운데 량치차오의 조선 인식에 관한 연구나 「朝鮮亡國史略」 한 논설에 대한 연구⁷⁾는 있었으나, 「日本併吞朝鮮記」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본고는 량치차오의 조선 관련 저작 전체⁸⁾와 그간의 관련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日本併吞朝鮮記」에 대해 집중적으로 탐구하고자 한다. 특히 자신을 특별한 제삼자⁹⁾로 인식했던 량치차오가 조선의 멸망에 대해 어떻게 분석했으며, 근본적으로 조선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 등에 대해 자세히 고찰함으로써 당시 중국 지식인의 역사 인식을 가늠해보고, 나아가 결코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는 백여 년 전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에 대해 제삼자의 시각을 통해 이해해 보고자 한다.

-
- 6) 「日本併吞朝鮮記」는 한국어로 완역한 상태에서 200자 원고 약 190매 정도의 분량이다.
 7) 劉明鍾, 「梁啓超의 『朝鮮亡國史略』에 대한 評述」, 『동양철학』 제1집, 한국동양철학회, 1990.
 8) 위에 열거한 저작들 외에 1899년 1월 11일 『清議報』 제6책에 실린 「韓國近狀」이라는 논설이 량치차오 저작으로 언급된 경우도 있으나, 이것은 당시 그가 주관하던 동 신문에서 일본 언론의 기사를 번역하여 「東報譯篇」이라는 코너에 게재한 것들 중 하나이다. 이 글은 『時事新報』 기사를 번역하고 말미에 약간의 평어를 달았는데, 역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아 량치차오의 번역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9) 「朝鮮亡國史略」 서두에서 자신을 “그(조선)와 친숙의 관계를 가진 이”로 표현하며 조선이 중국의 속국이었다는 인식을 드러낸 바 있다. (『朝鮮亡國史略』, 『新民叢報』 第53-54號, 1904.09.24-10.09, 『飲冰室專集』之十七, 1쪽)

2. 병탄 과정의 단계별 논의

『日本併呑朝鮮記』는 한일병합 후 1910년 9월 14일 량치차오가 滄江이라는 필명으로 『國風報』¹⁰⁾에 발표했다. 량치차오는 이 논설의 '記例'에서 일본을 주체로 해서 서술할 것임을 명기했다. 하지만 이전의 「朝鮮亡國史略」이나 「過去一年間世界大事記第六朝鮮之亡國」과 비교해서, 서사 방법의 차이로 인해 내용상 크게 달라진 것은 없어 보인다. 즉 조선의 멸망에 대해 당하는 조선을 주체로 해서 기술했던 가해하는 일본을 주체로 해서 기술했던, 기본적으로 모두 조선의 입장보다는 일본·러시아 및 중국 등 열강의 각축전이라는 큰 틀 아래 량치차오라는 제삼자의 입장에서 기술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가운데 우선 「朝鮮亡國史略」과 마찬가지로 「日本併呑朝鮮記」에서도 논설 서두에서 조선 멸망의 과정을 단계별로 시기 구분부터 함으로써 나름대로 체계적인 분석이 되도록 했다. 논설을 발표한 시점으로부터 약 40년 전부터 시작하여 4단계로 분기했다. 먼저 조선의 입장에서 ①중국에 예속되었던 시대, ②명목상 독립했던 시대, ③일본에 예속되었던 시대, ④일본에 병탄된 시대로 나누었다. 다음으로 이를 다시 일본의 입장에서 ①중국과 조선을 다투던 시대, ②러시아와 조선을 다투던 시대, ③조선을 보호국으로 삼게 된 시대, ④조선을 병탄한 시대로 나누었는데, 입장과 표현은 다르지만 두 과정의 네 시대는 분계선을 대략 같이 했다.

위의 분기는 결국 「朝鮮亡國史略」에서의 분기와 대동소이하게 된다. 즉 「朝鮮亡國史略」에서는 제 1기: 조선이 중일 양국의 조선으로 됨, 제 2기: 조선이 일본과 러시아 양국의 조선으로 됨, 제 3기: 조선이 일본의 조선으로 됨까지 구분하여 기술했었는데, 발표시점이 이른 관계로 ③시기 후반부와 ④시기가 없는 점 즉 실

10) 량치차오는 1895년 『中外公報』를 필두로, 『時務報』(1896-1898)·『清議報』(1898-1901)·『新民叢報』(1902-1907)·『新小説』(1902-1905)·『政論』(1907-1908)·『國風報』(1910-1911)·『庸言』(1912-1914)·『大中華』(1915-1916) 등 근대 중국의 중요한 신문·잡지 9종을 주관했으며, 대부분 이 매체들을 통해 자신의 논설을 발표했다. 한편 본고의 주 텍스트인 「日本併呑朝鮮記」를 비롯한 거의 모든 논설들은 신문·잡지에 실린 후 나중에 다시 『飲冰室合集』이나 『飲冰室合集集外文』에 수록된 것들을 근거로 했다.

제 한일병합까지 다 포괄하지 못한 점만 다르다. 『日本併吞朝鮮記』에서는 ①·② 시기를 前記로, ③·④시기를 本記로 했는데, ③시기 앞부분 즉 일본이 러일전쟁에서 유리한 상황을 전개하게 되면서 조선에서 고문정치를 전개¹¹⁾하는 등 강점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상황까지가 『朝鮮亡國史略』 제 3기에 해당하므로, 『朝鮮亡國史略』은 사실상 거의 『日本併吞朝鮮記』의 前記에 해당한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이제 량치차오가 크게 단계별로 논의한 과정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본절은 량치차오의 기술에 대해 객관적으로 소개하는 것을 위주로 한다.

前記의 ①시기는 다시 그 표제를 ‘中日爭韓記’로 달고, ‘조선과 중일 양국의 관계’·‘일한교통초기’·‘이른바 정한론에 대해’·‘강화도조약¹²⁾’·‘임오군란’·‘갑신정변’·‘텐진조약’·‘갑오전쟁’·‘일본이 조선의 내정에 간섭하기 시작함’·‘시모노세키조약 항목 순으로 논의했다.

먼저 ‘조선과 중일 양국의 관계’에서는 오랜 옛날부터 조선이 중국에 복속해온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임진왜란 당시 조선이 일본에 멸망당하기 직전에 명의 원조로 구원되었으며, 이로부터 조선을 두고 중일간의 다툼이 시작되었다고 보았다. 이후 서세동점의 근대에 이르러 일본은 維新으로 닦은 그 실력을 시험하고자 했고, 중국도 중흥을 도모한 이후 아직 국운이 기울지 않은 상황이었던 반면에, 조선은 분별없는 쇄국정책 하에 내적 이완이 극에 달해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이 되었고, 결국 다시 조선을 사이에 두고 중일 양국이 만나게 되면서 조선 멸망의 조짐이 드러났다고 여겼다.

량치차오의 논의를 바탕으로 정리하자면, 前記의 ①시기 중에서도 일본이 본격적으로 조선을 도모한 첫째 단계는 메이지 정부 수립(1868)부터 강화도조약 체결 무렵까지라고 할 수 있다. 일본에 메이지 정부가 수립된 시기에 조선에서는 대원군이 전제 정치를 하고 있었는데, 중국도 이미 五口通商¹³⁾을 오래 전부터 여는 등 관문을 닫고 지낼 수 없는 세계적 대세 속에서도 그는 오직 중국 정부에만 의지

11) 10월 15일 메가타 다네타로가 제정고문에, 12월 스티븐스가 외교 고문에 임명되었다.
 12) 1876년 2월의 朝日修好條規를 가리킨다.
 13) 아편전쟁의 패배로 난징조약에 의해 1842년 淸이 上海 등 다섯 항구를 통상항으로 개방한 것을 말한다.

했다고 주장했다. 또 량치차오가 보기에 대원군이 중국에 의지함은 이른바 부용의 명분을 지킨다거나 중국의 위엄을 두려워 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교활한 책임전가였다.¹⁴⁾ 반면에 일본은 장기적인 책략 하에 끊임없이 교섭 사신을 파견하는 가운데 征韓論을 둘러싼 대답을 벌이는 등 믿을 수 없는 기세를 보여주었으며, 그럼에도 조선인들이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결과적으로 조선이 일본을 분발시켰다고 여겼다.

결국 메이지 8년(1875) 9월 일본 군함 운요호(雲揚號)가 계획적으로 강화도에 침입하여 벌어진 충돌 사건을 빌미로 조선을 위협하여 이듬 해 2월 26일 처음으로 日韓修好條規 12개조를 체결함으로써 다시 새로운 단계로 들어서게 되었다고 보았다. 량치차오는 특히 신하는 외교를 할 수 없는데 중국의 신하인 조선이 외국과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일본으로 하여금 중국의 주권이 더 이상 조선에서 행해지지 않게 됨을 확인한 것이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고 보았다. 량치차오의 견해는 이 시기 일본이 우선 조선에서 중국의 지배권을 배제하는 치밀한 전략을 시행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원활한 대응을 하지 못했음을 비판하고, 또 내심 조선이 중국의 신하국으로서 의리를 지키지 않았음도 서운해 한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단계는 조선에서 중국을 배제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 일본이 본격적으로 중국과 극렬하게 조선 쟁탈전을 벌인 시기이다. 1882년 7월 임오군란 무렵부터 1884년 12월 갑신정변을 거쳐 1885년 4월 텐진조약 무렵까지이다. 량치차오의 정리는 이렇다. 조선의 극심한 부정부패는 결국 임오군란을 초래하여 군사 훈련 교습으로 초빙된 일본인 호리모토 레이조(堀本禮造)를 살해하고, 일본 공사관에 방화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군대를 파견하여 제물포조약(1882.8)을 체결하고, 이때부터 일본군이 한국에 주둔하게 되었다. 하지만 량치차오는 또 이 임오군란이 일어날 무렵, 중국도 李鴻章이 馬建忠을 보내 대원군을 사로잡아 保定으로 압송하고, 吳長慶에게 군사 4천을 인솔하고 한성에 주둔하게 하고, 袁世凱에게는 조선 통상 사무를 총괄하며 한국 인사들을 다루는 일들을 담

14) 량치차오는 외교 사안에 대해 부담을 내려놓고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중국인들의 心法으로, 대원군이 중국의 장기를 배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하게 했으며, 또 독일인 뮐렌돌프(摩靈德夫)를 외교 고문으로 삼고, 總稅務司 하트(赫德)로 하여금 세관을 감독하게 함으로써 당시 조선에서의 중국 세력이 일본보다 우위에 있었다고 여겼다.

이러한 중일의 경합에 따라 조선 내부에서도 이른바 중국당·일본당¹⁵⁾이 형성되었으며, 열세에 놓였던 일본은 일본당 인사들과 협력하여 수단을 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만회에 나서면서 결국 갑신정변을 일으켜, 다시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보았다. 량치차오의 설명을 요약하면, 갑신정변 당시 사실 배후의 '도발자' 일본은 '정말 아무리 애써도 갈수록 궁지에 빠지는 상황'인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淸軍이 궁에 들어갔을 때 일본공사 다케조에 신이치로(竹添進一郎)는 일본군을 제지하고 총을 쏘지 못하게 했다. 반면에 袁世凱는 일본 공사관을 포격하고 불태움으로써 절호의 구실을 주었다. 일본정부는 이 구실을 바탕으로, 이토 히로부미에게 전권을 주고 天津에 가서 李鴻章과 교섭하게 하여 텐진조약을 체결했다. 량치차오는 이에 대해, 앞서의 강화도조약은 조선으로 하여금 중국의 속국이 아님을 인정하게 했고, 텐진조약은 중국으로 하여금 조선이 중국의 속국이 아님을 인정하게 했으며, 중국이 조선을 속국으로 볼 수 있는 한, 일본도 조선을 속국으로 볼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고 평가했다. 일본으로 하여금 한 단계 더 전진시킨 사건이라고 본 것이다.

량치차오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텐진조약으로 한 걸음 더 나간 후, 일본은 7-8년간 웅크리고 더 큰 도약을 할 셋째 단계를 준비했다. 갑신정변 실패로 조선 정국이 중국 쪽으로 기울면서 일본은 조선과의 교섭에서 큰 일이 없었던 반면, 중국 측 袁世凱는 오만한 상국 대표로서 조선에 임하여 원성을 샀다. 그러던 중 1894년 3월 동학 농민 봉기가 일어나자, 袁世凱는 공명을 세우려는 생각으로 급히 고종에게 권하여 중국에 원조를 요청하게 했다. 이에 중국 군함 揚威·平遠·操江號가 인천에 들어왔는데, 일본 군함 일곱 척이 이미 정연히 있었고, 해병대 4백 명과 대포 2문으로 공사 오토리 게이스케(大鳥圭介)를 호위하고 한성으로 들어왔다. 대치 상황 속에서 조선이 속국인지 자주국인지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15) 친중국 당파, 친일본 당파를 가리킨다.

벌어졌고,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없게 되자 결국 1894년 갑오년의 전쟁 즉 청일전쟁에 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보았다.

일본군이 한성에 들어오고 청일전쟁을 유리하게 전개해가자 조선 조정은 다시 일본당 즉 유신당 인사들이 장악하게 되고, 일본이 조선 내정에 본격적으로 간섭하기 시작했다. 일본 정부는 오토리 게이스케에 이어 유신 원훈인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를 공사로 보내 강하게 압박했다. 이에 고종은 이른바 洪範 14章을 반포했다. 그러나 이 개혁 정책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고, 이로써 일본인들은 조선의 무능을 재확인하고, 침략 의지를 더욱 굳히게 되었다고 보았다. 또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며 1895년 4월 시모노세키조약(馬關條約)을 맺었는데, 제 1조는 중국이 조선을 완전한 독립자주국으로 인정하는 것이었다. 량치차오는 이에 대해 조선이 중국으로부터 벗어났음을 공문으로 확인한 의미이며, 텐진조약에서 발단되어 시모노세키조약에서 성사된 셈이었다고 평했다. 이로써 중국은 조선에서 다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고, 이 셋째 단계를 거치며 일본이 조선을 병탄하는 ①시기 정책이 완전히 성사되었음을 뜻한다고 보았다. 속국을 상실해가는 중국의 외교전략 부재에 대해 비난하고, 조선을 두고 경쟁을 벌인 경쟁자이자 미래의 중국침략자인 일본에 대해 염려하는 중국 정치가의 입장이 두드러져 보인다.

다음은 前期의 ②시기이다. 일본은 ①시기에서 중국을 제압했으나 조선에 대해 야심을 품은 또 다른 열강 러시아의 등장으로 부득불 새로운 경쟁의 단계를 거쳐야 했다. 량치차오는 이 시기를 제 2기로 하고 '일러쟁韓記'라는 표제를 붙였다. 량치차오의 세부적 논의는 이러했다. 지속적으로 남하를 시도한 러시아는 블라디보스토크(海參威)를 얻고 나서, 가까운 조선을 도모하기 시작했다. 당시 조선 업무를 담당하는 인물은 베베르(威爾拔, Karl Ivanovich Veber)였는데, 북경의 러시아 공사관 서기관을 거치며 동방 사람들의 성향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갑신정변 무렵부터 조선에 주재하면서 사교에 능통한 부인과 함께 명성황후 등과 교류하며 세력을 조성했다. 이러한 가운데 특히 앞서 언급했듯이 일본이 시모노세키조약으로 중국을 배제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곧바로 러불독 3국이 라오동반도 영유에 간섭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주도국이었던 러시아가 전승국인 일본의 전승국

같은 모양이 되었다. 이에 일본에 대해 불만을 가졌던 세력을 중심으로 조선 조정
이 러시아 세력에게 기울어졌으며, 명성황후가 그 중추였다고 보았다.

량치차오는 일본이 위와 같은 불리한 정세를 타개하기 위해 다시 전대미문의
교활한 수단을 사용했다고 비난했다. 눈엣가시였던 명성황후를 시해한 것이다. 이
에 대해 그는 “국가를 대표하여 우호를 도모하도록 명을 받은 사신이 반란의 무리
를 교사하여 우방국 주권자의 배필을 살해한 것은 문명국 사이에선 들어보지 못한
일이라고들 했다”¹⁶⁾는 당시 국제적 비판 여론을 소개했다. 이 대목에서 량치차오
는 1895년 8월, 일본이 갑자기 이노우에 공사를 미우라 고로(三浦梧樓)로 교체했
으며, 미우라는 부임한지 셋째 날 중요 범인인 오카모토 류노스케(岡本柳之助)를
명성황후의 전제로 불만 속에 지내던 대원군에게 보내 만나게 했고, 이튿날 대원
군이 ‘군주의 측근을 깨끗이 한다(淸君側)’는 명분하에 훈련대를 거느리고 호위에
들어간 동안에 사건이 발생했다고 기술했다. 훈련대는 일본 장교가 훈련시킨 부대
이고, 대원군과 더불어 일본공사도 위병 한 부대를 거느리고 그 뒤를 따랐다고 함
으로써 일본인들의 시해와 더불어 대원군도 개입되었음을 암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량치차오는 또 일본이 갑신정변에 이어 다시 기이하고 비열한 수단으
로 상대를 제압하려고 했지만 마찬가지로 다시 역효과를 냈다고 평했다. 즉 아관
파천으로 국면이 뒤집혀 러시아인들이 재정 감독을 행하고, 군대를 훈련시키고,
러시아어 학교를 설립하고, 경성·원산 간 전선과 시베리아를 접속하고, 함경도
채광권을 얻는 등 오히려 러시아 세력의 전성시대가 전개되었다는 것이다. 그 과
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자세히 설명했다. 이 시기에 일본과 러시아는 조선 문제를
두고 세 차례 외교 협상을 했다. 첫 번째는 1896년 5월 주한 일본공사 고무라 주
타로(小村壽太郎)와 러시아 공사 베베르가 서울에서 협상했고, 두 번째는 같은
해 6월 일본이 러시아 황제의 戴冠式을 축하하러 보낸 전권 사신 야마가타 아리모
토(山縣有朋)와 러시아 외무대신 로바노프(Rovanov)가 모스크바에서 협상했으
며, 세 번째는 1896년 4월 주일 러시아공사 로젠과 일본 외무대신 니시 도쿠지로
(西德次郎)가 일본에서 협상했다고 설명했다. 량치차오는 당시 러시아 세력이 상

16) 『日本併呑朝鮮記』, 『飲冰室專集』之二十一, 10쪽.

대적으로 우세하여, 앞의 두 회담은 일본이 매우 굴종적이었으나, 마지막 회담에서는 러시아가 다소 양보했다고 보았다. 이유는 첫째 한국인들이 막 독립협회를 설립하여 배러 기세가 갑자기 확산되었고, 영국 또한 성원하여 다소 두려웠기 때문이며, 둘째 독일이 중국에서 膠州灣을 점령하자 러시아도 큰 먹이인 중국에 치중하여 여순·대련을 약탈하고자 했기 때문이었다고 분석했다. 이에 조선 쟁탈전은 한동안 잠잠했다고도 보았다. 前記 ②시기의 1단계에는 이와 같이 1895년 8월 명성황후 시해사건 무렵부터 1898년 러시아의 여순·대련 조차 성공 무렵까지 조선을 두고 일본과 러시아가 쟁탈전을 벌이는 가운데 러시아가 우위에 있었다고 분석한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어지는 량치차오의 분석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만주에 더 큰 욕심을 냈던 러시아는 1900년 義和團 사건을 빌미로 결국 뜻을 이루었다. 하지만 조선을 포기한 것도 아니어서 일본을 불안하게 했다. 자신에 차 있던 러시아는 세 차례나 철군 약속을 하고도 지키지 않았으며, 당시 양국 간에 滿韓交換과 관련한 의견도 있었고, 지리한 외교 교섭도 이어졌으나 효과가 없었다. 이에 결국 1904년 1월, 러일 전쟁이 일어났다. 전쟁이 발발하자 조선은 속수무책이었으나, 일본은 이미 급히 경부철로공사를 완공했고, 곧바로 일본군을 동원하여 조선 국토 전부를 점령했다. 이어서 마침내 日韓國防同盟條約 6개조를 체결함으로써 조선은 완전히 장악되었다. 즉 조약이 성립되자 조선은 곧바로 종전 러한조약의 폐기를 선언하여 조선과 러시아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일본의 승리로 전쟁이 종결되며 1905년 9월 5일 포츠머스 조약을 체결했는데, 특히 제 2조에서 “러시아정부는 일본국이 한국에서 정치·군사 및 경제상으로 탁월한 이익을 가지는 것을 승인한다. 일본정부는 한국에서 필요하다고 여길 경우 지도·보호 및 감리의 권리를 집행하며, 러시아는 방해·간섭하지 않는다.”¹⁷⁾라고 함으로써 조선에서 러시아를 완전히 배제하게 되었다. 량치차오는 이와 같이 일본이 전쟁으로 중국에 이은 경쟁자 러시아를 제압한 러일전쟁 무렵을 2단계로 할 수 있으며, 이로써 일본이 한국을 병탄하는 前記의 ②시기 정책이 완전히 성사되었다고 주장했다. 역시 량치차오가 자신도 제국주의

17) 『日本併吞朝鮮記』, 『飲冰室專集』之二十一, 11쪽.

적 입장에 머물며 조선을 둘러싼 제국주의 열강의 쟁탈전에 대해 분석하고 견책한 모순된 모습을 엿볼 수 있다.

다음으로 本記도 두 시기로 나누었고, 그 첫째 즉 前記와 합쳐서 셋째 시기는 ‘日本役韓記’로 표제를 달았다. 이 시기는 다시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첫 단계는 러일전쟁 시기의 상황을 기술하여 시간상으로 앞 단계와 다소 중복되나, 내용상으로는 앞 단계가 주로 일본의 대러 관계를 다룬 데 비해 여기서는 일본의 본격적인 조선 경영에 대해 논의했다. 량치차오의 논의를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개전 무렵 일본은 이토 히로부미를 황실 특사로 파견하여 고종을 위문하게 하고, 일본 황태자로 하여금 조선을 巡遊하게 하는 등 일종의 회유책을 폈다. 전쟁이 유리한 국면으로 전개되면서 조선 정치세력은 다시 급격히 일본으로 기울었고, 일본은 조선 정부 각 부처에 고문¹⁸⁾을 두어 내정을 완전히 장악했다. 량치차오는 이를 ‘고문정치’라고 일컬었다. 한편 이 시기에는 조선 내부에서 일본의 조선 도모를 촉진한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바로 一進會가 성립된 것이다. 량치차오가 일진회에 대해 상세히 설명함과 더불어 극렬히 비판하고, 일진회로 인해 일본이 조선을 쉽게 병탄할 수 있었다고 평한 부분이 두드러져 보인다.

두 번째 단계는 1905년 9월부터 1909년 10월 안중근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저격사건 발생 무렵까지로, 러일전쟁 승리 후 일본이 조선을 완전히 보호국화한 상황을 기술했다. 간략히 정리하면, 포츠머스 조약이 체결되자 일본은 이토 히로부미를 대사로 파견하여 고종에게 상황 설명을 하고, 이어서 11월 17일 日韓新協約¹⁹⁾을 체결하여 조선이 보호국임을 확정하고, 우선 그 외교권을 접수했다. 조선 국민들의 저항이 있었으나, 일진회가 처음으로 찬동하는 일도 있었다. 이후 일본은 마침내 통감부 및 理事廳制를 반포하고, 이토 히로부미를 한국 통감에 임명했고, 이어서 일본을 모방한 신내각을 수립하고 李完用을 총리대신으로 삼았으며,

18) 량치차오는 육군 소좌 노즈 시즈다케(野津鎮雄)를 군부 고문으로, 전임 공사 가토 마사오(加藤增雄)를 궁내 고문 겸 농공상부 고문으로, 大藏省 參事官 메가타 다네타로(目賀田種太郎)를 재정고문으로, 그들의 측근인 미국인 스티븐스(士狄布, Durham Stevens)를 外事 고문으로, 문학박사 시데하라 다이아(幣原坦)를 學政參與官으로, 내무성 관리 마루야마 시게토시(丸山重俊)를 경무고문으로 삼았다고 기술했다.

19) 1905년 11월 17일의 韓日協商條約 즉 을사늑약을 가리킨다.

이토가 업무를 시작함으로써 실질적인 식민 지배 단계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보았다.

량치차오에 의하면, 이 시기에는 헤이그 밀사 사건과 고종 황제 양위라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일본이 조선의 내정을 더욱 속박하게 되었다. 1907년 7월, 李相高·李瑋鐘·李俊 3인이 자칭 한국 황제의 대표라며 네덜란드의 헤이그에 출현하여 만국평화회의에 참가하게 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며칠 후 미국인 명의로 각국 신문사에 전보를 보내, 한국 황제가 지금 일본 경찰에 갇혀 마치 묶인 죄수 같으며, 밤낮으로 거기서 눈물로 얼굴을 씻고 있다고 했다. 이 사건에 대한 추궁으로 결국 고종은 18일 양위하게 되고, 연호를 隆熙로 바꿨다. 8월 1일, 새 황제는 한국 군대를 해산하는 조칙을 내렸다. 량치차오는 통감 이토가 11일 일본으로 귀국하자 일본인들이 둘러싸고 만세를 불러 마치 개선장군을 환영하는 의식 같았다고 표현했다.

계속되는 량치차오의 기술을 보면, 대세가 완전히 정해지자 일본은 한동안 '매서운 기세를 거두고 풀어주며 수용하는' 정책을 시행하며 조선인들이 스스로 길들여지도록 했다. 그리고 앞의 단계까지 주도적 역할을 했던 이토 히로부미는 임무를 소네 아라스케(曾彌荒助)에게 맡겨 하고, 자신은 조선 황태자를 일본에 유학시켜 교육하는 일에 치중했다. 량치차오는 지금까지 이토가 이룬 공적에 대해, 밖으로 크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조선 황제와 관리들을 길들였고, 東洋拓植會社와 한국중앙은행을 세워 경제를 장악한 점이 특히 중요했다고 평가했다. 주지하듯이 그러한 이토는 1909년 10월, 만주 방문 중 하얼빈 역에서 안중근 의사에게 저격되었다. 량치차오는 당시 상황을 간략히 묘사하며,²⁰⁾ 안중근 의사에 대해 일본인들도 존경심이 생길 정도였다고 찬양하기도 했다.

끝으로 량치차오는 ④시기를 '日本併韓記'라는 표제 하에 기술했다. 이 시기도 다시 두 단계로 나누었는데, 우선 첫 단계는 1909년 10월부터 1910년 5월 군 출신의 통감으로 교체하기 전까지로, 일진회를 중심으로 조선 병탄의 여론을 조성한

20) 량치차오는 안중근 의사의 저격 사건을 제재로 「秋風斷藤曲」이라는 장편시를 지은 바 있다. (참고, 「梁啓超의 秋風斷藤曲 探究」, 『동아시아문화연구』 제49집,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2011 참고.)

시기로 규정했다. 바로 위의 단계에서 통감정치를 시행함으로써 조선을 장악하게 되었지만, ‘멀리는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로부터, 가까이는 사이고 다카모리(西郷隆盛)에 이르기까지’ 품어왔던 병탄의 단계에 완전히 이르는 못했다고 보았다. 량치차오는 아직 이른바 ‘국제도덕’ 즉 국제적인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겼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나서서 조선 병탄의 여론을 조성한 것이 바로 조선인들의 일진회였다고 주장했다. 그의 설명에 의하면, 이토 히로부미가 저격당한지 9일 후, 일진회 회장 이용구가 회원 30만을 이끌고 連署하여, 일한합방청원서를 조선 정부 및 통감부에 바쳤다. 그들은 또 전국을 유세하며 합방의 이로움을 찬양했다. 이와 관련하여 량치차오는 일본의 조선 병탄에 있어서 일진회 송병준과 이용구의 공이 이토 히로부미의 위에 있다고 조소한 바도 있다.²¹⁾ 정작 일본은 짐짓 염두에 두지 않는 것 같은 태도를 보였고, 정부 정책에 보조를 맞춰 언론과 국민들도 일체 논란을 벌이지 않았다고 했다. 군부를 비롯한 지도자의 정책에 일사분란하게 호응하는 일본의 국민성에 대해 부러움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막바지에 이른 설명은 다음과 같다. 즉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일본은 마지막 ④시기 중에서도 마지막 단계로 들어갔다. 세부적으로 말해, 1910년 5월 30일 통감을 육군 대신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로 경질함으로써 큰 변동을 예고했다. 결국 그는 8월 16일 이완용과 논의를 거쳐 합병협약 내용을 완성했고, 8월 29일 선포했다. 당일 일본은 바로 긴급 칙령을 내려 한국 국호를 없애고, 지역의 명칭을 ‘朝鮮’이라고 했다. 또 조선 총독을 두어 통감 데라우치를 임명했으며, 데라우치 총독은 바로 계엄령을 선포하여 집회를 금지했다. 량치차오는 이로써 조선 전역이 마치 물을 막아놓은 것과 같게 되었다고 묘사했다.

한편 당시 일진회는 합병조약 발표 하루 뒤, 통감부에 조선 통치를 위한 의견

21) 량치차오는 『朝鮮哀詞』 제19수 등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비중 있게 묘사한 바 있다. “賣國原無價, 書名更策功. 覆巢安得卵, 嗟爾可憐蟲. (매국은 원래 값없는 일임에도, 이름을 적어 책공까지 하는구나. 엮어진 둥지에서 어찌 알을 얻으리? 아! 이 가련한 벌레들아.)”라고 비판했다. 또 이 수의 해제에서 일진회는 정당의 이름을 빌어 관직을 탐내는 무리로 회원이 10만 여이며 주요 인물로 송병준과 이용구가 있는데, 현 내각 李完用 일파와 갈등 관계 속에서 경쟁적으로 일본에 아첨했다고 분석했다.

서²²⁾를 올렸는데, 이에 대해 량치차오는 한국인들이 원숭이에게 나무 오르는 법을 가르치는 수고를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국제사회의 조롱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또 3일이 지나서 일진회는 해산을 선고했는데, 한국을 멸망시키기 위한 특설 기관과 같았으므로, 한국이 망하자 기관도 자연히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열강들은 일본이 한국을 병합한 행위에 대해 모두 예상했던 일로 보고 의이해하지 않았으며, 다만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에 급급했다고 여기는 등 약육강식의 냉엄한 국제사회의 현실까지 곁들이며 본론을 마무리 지었다.

3. 조선멸망의 내적 원인 비판

량치차오는 위와 같이 일본의 조선 병탄 과정을 단계적으로 기술하는 가운데, 이 논설을 쓰는 목적이 조선 멸망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비판하고, 경쟁자이자 중국 침략자이기도 한 일본의 책략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중국을 위한 교훈으로 삼고자 함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日本併呑朝鮮記』 서론의 마지막 대목에서 다음과 같이 천명했다.

조선이 스스로 철저히 멸망하게 된 이유와 일본이 남의 나라를 도모한 술수에 대해 살펴본다. 이것은 진정 지금 세상에서 정치를 말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得失의 숲이 될 것이다.²³⁾

주지하듯이 량치차오의 지상 과제는 중국의 계몽이었으며, 그 가운데 조선은 중요한 교훈을 제공해주는 반면교사였다.²⁴⁾ 장래에 중국도 조선과 같은 망국의 나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인식 하에 근 10년 동안 면밀히 관찰해가며 조선

22) 량치차오에 의하면, 일진회는 의견서를 통해 어지러운 나라를 구원하고 제어함에는 중요한 전적의 經義를 활용해야 하는데 일본은 子産이 鄭나라를 다스리고 孔明이 蜀나라를 다스린 것을 본보기로 삼을 것 등을 청했다고 한다.

23) 『飲冰室專集』之二十一, 2쪽.

24) 량치차오의 조선 관련 논설들을 종합해본 바, 그의 조선에 대한 기본 인식은 ①중국의 속국, ②불행한 이웃, ③반면교사 이 세 가지가 뒤섞인 것이었다.

멸망에 관한 일련의 논설들을 썼다. 따라서 그와 중국에 있어서 조선 멸망의 원인에 대한 분석은 무엇보다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에 ‘스스로 철저히 망하게 된 이유’를 살피겠다고 한 것이며, 이렇게 멸망의 근본적 원인이 무엇보다 조선 스스로에게 있다는 결론을 미리 내고 이를 논의하여 중국 계몽에 활용하고자 했다. 논설 결론 부분에서도 “무릇 나라는 반드시 스스로 정벌된 연후에 남이 정벌한다. 조선이 만약 스스로 망하지 않는다면 망하게 할 수 있는 자는 없다. 이치는 당연히 그러하다.”²⁵⁾라며 다시 교훈적 의미를 강조했다.

량치차오는 『日本併呑朝鮮記』에서 조선 멸망의 원인으로 무엇보다 失政·惡政을 넘어 ‘정치의 부재’를 제기했다. 총체적으로 부실한 가운데 우선 주권자의 실정으로 인해 “조선은 관문을 닫고 즐겁게 3백년을 지내며 백성들은 날로 구차해지고 정치는 날로 어지러워졌으니, 그 기세는 이미 스스로 존립할 수 없을 정도였다.”²⁶⁾라고 평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특히 그가 보기에 이른바 주권자로서 일본과 중국을 영도했던 이토 히로부미 등 메이지유신 지도자 및 李鴻章 등 洋務運動 지도자들과 같은 시기에 집권했던 대원군에 대해 극도로 폄하했다.

그 사람됨은 술수와 모략 꾸미길 좋아하나 대체를 알지 못하며, 일 만 들기를 좋아하나 일정한 계획이 없으며, 성질이 잔혹하고 교만하나 속마음은 유약하고 시기가 많으니, 실로 조선 민족성질의 대표이며 멸망의 장본인이다.²⁷⁾

대원군에게는 국가를 위한 정치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고, 그는 오직 무책임하게 중국 정부에게만 의지했다고 비판했다. 물론 이러한 비판에는 청일전쟁 당시 ‘중국의 패전보가 이르기 직전에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이른바 양다리(貳)바 있고, 결국은 중국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난 옛 번속의 지도자에 대한 중화주의 입장에서의 서운한 감정도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대원군을 중심으로 한 분별없는 쇄국 정책으로 인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강력한 이웃의

25) 『飲冰室專集』之二十一, 20쪽.

26) 『飲冰室專集』之二十一, 2쪽.

27) 『飲冰室專集』之二十一, 3쪽.

적개심만 키워 분발시켰다고 주장했다.

같은 맥락에서 량치차오는 고종의 자질과 무능에 대해서도 비판한 바 있다. 『日本併呑朝鮮記』에서는 “왕은 왕비 및 태자의 소재를 잃고 울면서 가려 하지 않았다.”거나, “이노우에는 政策 24조를 올리고 한국 왕을 알현했는데, 말소리와 표정이 모두 매서웠다. 한국 왕은 몹시 두려워했다.”거나, “조선 왕 역시 함부로 황제의 칭호를 도용하며 잠시 스스로를 위로했다.”²⁸⁾라고 하며 간접적으로 비하했다. 참고로 다른 논설들, 예를 들어 『嗚呼韓國嗚呼韓皇嗚呼韓民』(1907.10)에서는 定見이 없다²⁹⁾고 간단하지만 직접적으로 비판했고, 나아가 가장 비판적인 글인 『朝鮮滅亡之原因』에서는 “두려움이 많고 나약하여 스스로 떨쳐 일어나지 못하고, 의심이 많고 결단성이 부족하여 참언을 듣기 좋아하고 사리판단에 어두우며, 총애하는 궁녀가 많고 도적놈들이나 가까이 하며, 잔피를 부리고 계획은 늘 치졸하며, 타인에게 의지하여 자립하지 못하며, 허식을 좋아하고 내실에 힘쓰지 않는다.”³⁰⁾라고 극렬한 비판을 가하며 멸망의 원인으로 지목했다.³¹⁾ 역시 계몽 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한 문학가적 과장도 더해진 것으로 여겨진다.

다음으로 량치차오는 여러 논설에서 조선의 지배계층인 귀족·관리 등 양반에 대해서도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 『日本併呑朝鮮記』 ④시기에서 보듯이, 그는 조선의 君臣들이 한일병합 발표를 앞두고도 황제 즉위 4주년 기념연회를 자연스럽게 치렀다고 주장했다.³²⁾ 그러면서 량치차오는 이러한 어이없는 행태에 대해 당시 조선 지배계층에 개인주의와 사대주의가 팽배했던 반면에 국가의식과 주권의식은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여겼다. 그는 지도층의 이러한 성향이 결국 친일

28) 이상 『飲冰室專集』之二十一, 6쪽, 8쪽.

29) 『政論』 第1號, 1907.10.07, 夏曉虹輯『飲冰室合集集外文』上, 北京大學出版社, 2005.1, 517쪽 참고.

30) 『國風報』 第22期, 1910.09.14, 『飲冰室專集』之二十, 2쪽.

31) 이러한 관점에서 량치차오는 같은 『朝鮮滅亡之原因』에서는 명확하게 조선 멸망의 최대 원인을 宮廷이라고 단언했다. (“朝鮮滅亡之最大原因, 實惟宮廷.”) 국가 최고 지도자의 무능과 失政으로 정치적 혼란을 초래하여 망국으로 이어졌다고 본 것이다. (『飲冰室專集』之二十, 1쪽.)

32) 량치차오의 언급을 뒷받침할만한 한국 및 일본의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히 어떤 행사를 가리키는지 불확실하다.

파를 만들어 망국의 직접적인 주역이 되게 했다고 보았다. 같은 맥락에서 이 논설 본론 마지막 대목에서는 조선이 멸망함에 일부 군현의 장관이나 해외 유학생 중에는 순국한 이가 있었고 지방 농민이나 교포 상공인 중에도 광복을 위해 헌신한 이들이 있었으나, 조정의 상류 지배계층은 그렇지 않았다고 비판함으로써 지배계층의 부정적 역할이 멸망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음을 강조했다.

왜냐하면, 량치차오도 설명한 바, 조선의 경우는 사실상 “양반만이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인격을 가지고 정치·경제·사회를 독점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직만을 직업으로 삼고 모두 존귀하고 우월함만 누리며 교만하여 일도 하지 않으면서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마음대로 했고”, 또 “관직을 개설하는 것은 정치를 행하기 위함인데 조선에서는 그것이 직업 없는 사람을 양성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봉당이 나 만들어 당쟁을 벌이고 이를 통해 사욕을 도모했으므로 이는 다른 나라들의 정치단체들이 수행하는 정치가 아니었기” 때문이다.³³⁾ 외세의 침략에 맞서 국가와 민족을 구원의 길로 이끌고 가야할 조선의 지배계층은 자기 개인만 알 뿐 국가의식이 없어 진정한 정치를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더구나 『日本併吞朝鮮記』 전반에 걸쳐 본 바와 같이, 이들은 침략자들의 세력 판도에 따라 대원군과 명성황후까지 앞장서 이른바 일본당·중국당·러시아당³⁴⁾으로 나뉘어 극한 대립을 끊임 없이 반복함으로써 멸망을 재촉했다고 보았다.

특히 조선 쟁탈전에서 일본이 우세해지면서 조선의 지배계층은 친일파를 만들고, 이들은 “국가를 팔아 개인적 이익을 취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았다”고 비난했다.³⁵⁾ 량치차오는 여러 논설에서 구체적으로 친일 집단인 一進會의 성립이 조선을 망하게 한 일대 사건이었다고 기술했다. 『日本併吞朝鮮記』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하게 비난했다.

한국을 멸망시킨 것은 일본이요, 일본을 도와 한국을 멸망시킨 것은 한국의 일진회이다. 일진회라는 것이 무엇인가? 정당의 이름을 사칭하고 적에게 아부함으로써 부귀를 얻은 자들이다. 일진회의 영수는 宋秉畷이요,

33) 이상 「朝鮮滅亡之原因」, 『飲冰室專集』之二十, 3-4쪽.

34) 친러시아 당파를 가리킨다.

35) 「朝鮮貴族之將來」, 『國風報』第5期, 1911.03.21, 『飲冰室文集』之二十五上, 199쪽.

李容九인데, 병준이 특히 주동이였다. 병준이라는 자는 전에 國事와 관련된 범죄로 일본에 10년 동안 도망쳐 있다가, 러일전쟁 때 일본군 향도가 되어 귀국한 자이다. 그 사람됨은 본래 음흉하고 악랄한 재주를 지니고 있었고, 기회를 타는 데 교묘했다.……일본 메이지 37년 8월 한성에서 일진회가 열렸고, 그 第1 政綱은 바로 일본에 대한 찬조를 명시한 것이었다. 몇 달 되지도 않아 전국적으로 호응하여, 회의 참가자가 수십만이 되었다. 공정한 입장에서 논하자면, 일진회가 아니었다면 일본은 사실 아직 한국을 멸망시킬 수 없었을 것이다. 일진회가 있었기에 일본은 한국을 멸망시키는 데 더 힘을 들이지 않았다. 그러므로 일진회의 성립은 한국을 망하게 한 일대 사건이라고 해도 안 될 것이 없다.³⁶⁾

량치차오가 조선 멸망의 원인에 대해 분석한 것들 중 일진회와 관련된 부분이 가장 구체적이고 비판적이다. 친 외세 집단의 출현에 대해 극도로 경계하는 인식이 드러난다. 이 논설 후반부에서도 일진회에 대해 조금 더 세밀한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물론 결론은 위의 대목과 마찬가지로 멸망의 중요한 원인이었다는 것이다.

혹자는 이르기를, 일진회가 한국의 형세를 살펴 합병하는 것과 합병하지 않고 망하기를 기다리는 것에 대해 이해하고는, 합병해서 인민의 기쁨과 이로움의 일부라도 증진하는 것이 낫다고 여긴 것이라고 했다. 또 혹자는 이르기를, 일진회는 이완용 내각에 대해 불만스러워 그를 대신하고자 했으나, 되지 않자 차라리 이 이름뿐인 정부와 더불어 다 파괴하여 같이 죽자는 것이라고도 했다. 또 혹자는 이르기를, 일진회는 한국 백성들의利害에 대해 견해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또 한국 정부에 대해 한사코 미워했던 것도 아니며, 합병이 이루어지면 일진회 회원들이 장차 얻을 것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다 구체적으로 논할 것은 없고, 요는 姓은 어차피 번갈아 흥하는 것이며, 堯임금이 舜임금에게 선양한 것을 본받는다면, 九錫文³⁷⁾과 勸進表³⁸⁾는 先朝의 늙은이들 손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일본이 합병의 공을 찬양한다면, 송병준·이용구가 마땅히 이토 히로부미 위에 있어야 할 것이다.³⁹⁾

36) 『飲冰室專集』之二十一, 12쪽.

37) 논설 체제의 하나. 九錫은 천자가 공이 큰 권신에게 하사하는 아홉 가지 물품이고, 구석문은 그 때 같이 써주는 글로서, 권신의 공덕을 기리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38) 帝位에 오를 것을 요청하는 논설.

한편 조선의 양반·지식인계층에 대한 량치차오의 논의 중에는 예외적으로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 이 논설 전후로 지은 장편시들인 「秋風斷藤曲」과 「朝鮮哀詞」에서 읊은 안중근⁴⁰⁾과 홍범식에 대한 찬양이었다. 「朝鮮滅亡之原因」에서도 조선사람 가운데에는 물론 안중근 같이 억만 명 중에 한둘 나오는 위인도 있어 일률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으며 특별히 칭송했고,⁴¹⁾ 앞서 언급했듯이, 이 논설에서도 한마디로 일본인까지 경의를 표할 정도의 인물이었다고 평가했다. 본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토 히로부미는 치밀한 전략 하에 을사늑약 이후 조선의 권력을 완전히 장악한 가운데 직접 식민지화 해나갔으며, 그 과정에서 친일파들을 교묘히 활용하는 등 조선을 완전히 농락했다. 이에 안중근 의사는 추풍과 같은 비장하고 의연한 기상으로 그 마수 같은 덩굴(藤)을 끊어버리고 의로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다. 『日本併吞朝鮮記』의 기술을 아래에 인용한다.

그 달 24일, 하얼빈 역에 도착했을 때, 한국인 안중근이 그를 저격했다. 세 발. 마침내 죽었다. 중근이라는 자는 예수교도이며, 일찍이 미국에서 공부한 자이다. 체포되어 일본인들이 심문했으나, 꺼릴 바 없었으며, 訟事가 성립되어 사형을 받았다. 왜 도망치지 않았는지 물으니, 자신은 팽복군의 한 將官으로서, 義는 도망칠 수 없다고 답했다.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물으니, 자신은 이미 자신의 원수를 섬멸하여 자신의 일이 끝났으니, 한번 죽는 것 외에 다른 것은 구할 것이 없다고 답했다. 일본인들도 그에게 존경심이 생겼다.⁴²⁾

39) 『飲冰室專集』之二十一, 15-16쪽.

40) 특히 「秋風斷藤曲」은 안중근의사 의거를 주 제재로 한 작품이다. 참고로 살펴보면, 이 시는 안중근의사의 비장함과 의연함에 대한 존경과 동정의 마음 한편으로 이토 히로부미의 유신에 대한 동경과 추송을 “추풍에 덩굴(藤) 끊어지다”라는 상징적인 제목 아래 복잡·미묘하게 담아냈다. 본고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조선의 귀족·양반들이 국가의식 없이 개인적 이익에만 몰두하는 상황 속에서도 시세와 달리 나라 위해 결연히 목숨 바치고자 했던 대장부가 나왔음을 강조하며, 당시의 의거 상황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기개를 호방하게 묘사해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토 히로부미라는 유신의 롤 모델을 잃은 안타까움도 피력함으로써 제 3자로서의 냉정함도 나타냈다. (줄고, 『梁啓超의 秋風斷藤曲 탐구』, 앞의 글 참고.)

41) 『飲冰室專集』之二十, 5쪽.

42) 『飲冰室專集』之二十一, 14쪽.

결과적으로 국가를 멸망에 이르게 한 조선 상류층에 대해 가차 없이 비판했지만, 사실 비슷하게 침략 당하는 입장에서 중국 땅에 등장한 일제의 수뇌를 중국인이 아닌 조선인이 응징한 사건은 중국인들에게도 크게 귀감이 되는 일이었다.

위와 같이 량치차오는 조선 멸망의 원인으로 우선 주권자인 조선 황제와 대원군의 무능 및 실정을 들었고, 확대하여 귀족·관리를 비롯한 양반 통치계층에 국가 의식이 없어 정치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점을 꼽았다.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는 조선인의 국민성이 열악한 데서 기인하다는 논리로 발전했다.

량치차오 사상 중 가장 핵심으로 잘 알려진 '新民思想'은 계몽주의 차원에서 근대화를 위해 국민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유였으며, 이러한 입장에서 그는 여러 논설에서 조선 멸망의 최대 근원은 열악한 국민성에 있다는 논리를 강하게 전개했다. 물론 조선의 국민성에 대해 중국 국민성에 대한 분석처럼 자세하지는 않았지만 극도의 비판적인 견해를 피력한 바도 있다.⁴³⁾ 아울러 을사늑약까지의 글들에서는 조선에 대한 비판의 수위가 정치가 권세와 이익의 추구에 머물고 자주독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정도였으나, 이후 멸망이 확정되어 감에 따라 점차 조선 국민성에 대한 심각한 비판으로 발전한 점도 엿보인다. 『日本併呑朝鮮記』 중의 '일본이 조선의 내정에 간섭하게 된 발단'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강하고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했다.

한국인이 자립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남에게 의지하는 것은 그 천성이 다. 일본군이 한국의 수도에 들어오자 한국인들 중 유신당이라고 부르는 자들이 모두 싱글벙글 희색을 띠었다. 앞 다투어 일본군과 내통하며 군대로 왕성을 막고서 왕비를 폐할 것이며, 대원군을 일으켜 다시 섭정하게 할 것을 요청했다. 일본인들은 그 두 번째 것을 따랐다. 왕비를 폐하는 일은 가지고만 있고 행하지는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침내 구관들을 다 쫓아내고, 의정부와 8대 衙門을 세우고 명칭은 다 일본을 따랐다. 일본당 인물들로 채우고, 대원군이 우두머리가 되었다. 신정부는 비록 개혁을 스스로의 목표로 삼고, 대신들은 날마다 회의를 열었으나, 그저 입에 담뱃대나 물고 한가로이 근거 없는 이야기만 하며 국사에는 하나도 미치지 않았다.

43) 줄고, 『梁啓超의 中國國民性論 및 朝鮮國民性 批判 探究』, 『외국학연구』 제24집, 중앙대학교 외국학연구소, 2013 참고.

안에서는 봉당이 서로 배척하여, 서로 배에 칼을 꽂으려고 했다.……일본은 이에 더욱 더 조선인이 스스로 자립하지 못함을 알게 되어 조선을 취해 대신하려는 마음을 더욱 굳히게 되었다.⁴⁴⁾

일본이 조선의 내정에 간섭하기 시작하면서 곧바로 열악한 국민성을 지닌 조선인들이 자율적으로 개혁해나갈 능력과 의지가 없음을 간파하고 침략의도를 굳혔다고 논의한 것이다.

관련하여 이 논설 곳곳에서는 조선이 중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고 나아가 이른바 그 오랜 천성인 대외의존 즉 事大主義의 대상이 러시아를 거쳐 일본으로 바뀌었다는 인식 하에 자의든 타의든 중국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난 옛 번속의 지도자 및 국민들에 대한 중화제국주의적 서운함과 조롱도 감추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본 대원군이나 고종의 품성에 대한 비판이 좋은 예이다. 특히 1897년 10월 12일 여론에 힘입어 고종은 황제 즉위식을 거행하고 다음날 국호를 大韓帝國으로 변경하여 선포했는데, 량치차오는 이에 대해 『日本併呑朝鮮記』에서 조선이 중국의 속국으로부터 이탈하여 황제 칭호를 함부로 도용했다(妄竊帝號)는 식의 냉소적인 평어도 빼놓지 않았다.

이렇게 량치차오가 조선 국민성을 비판·조롱하고 멸망의 근원으로 제기한 것은 기본적으로 당시 조선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중국인들을 장차 멸망의 나락에 빠지지 않게 하고 나아가 自強으로 유도하기 위한 계몽적 의도에서 미래의 중국을 위해 현재의 조선 문제를 다분히 주관적·편파적으로 분석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세히 논의하자면, 량치차오는 1899년 4월부터 11월까지 『清議報』에 불문칠리의 『國家論』을 번역·연재하면서 근대 서구의 국가·국민의 개념을 본격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민성에 관한 논의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갔다. 연재가 끝난 직후인 같은 해 12월 발표한 「國民十大元氣論」을 필두로 1901년의 「國民積弱溯源論」, 1902-1906년의 「新民說」, 1903년의 「論中國國民之品格」 등등 논설에서 국민성 문제에 대해 집중적이고 체계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그 첫

44) 『飲冰室專集』之二十一, 7-8쪽.

논설인 「國民十大元氣論」은 일명 「文明之精神」으로도 알려졌는데, 실제로는 '敍論'과 '獨立論'으로만 구성되어 있듯이 명확히 '國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가운데 무엇보다 '자주독립의식'을 국민의 제일 요건으로 강조했다. 이 논설의 핵심은 국민들이 그간의 의타성·노예근성을 제거하고, 그 반대인 자주독립성을 갖자고 강조한 것이다. 결국 위에서 조선이라는 국가의 멸망 원인으로 지목한 조선 국민성 중 가장 부정적인 속성을 제거하고 반대의 이상적인 속성을 갖자는 것이다.⁴⁵⁾

사실 이 무렵부터 량치차오의 최대 관심사는 바로 국민성 개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보면 그는 근 10년 동안 이 사유를 기반으로 조선의 상황을 주시했고,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자 의타성을 비롯한 열악한 국민성을 멸망의 원인으로 제기하여 중국을 위한 반면교사로 삼고자 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량치차오는 총체적으로 조선인들이 매우 개인주의적이라고 비판했다. 그것도 “전 세계에서 개인주의가 가장 발달한 나라로는 조선이 그 으뜸이다.”⁴⁶⁾라고 할 정도였다. 조선의 국가의식·주권의식이 박약하고 그 반대로 노예근성이 강한 것은 결국 개인주의 성향의 국민성에 기인한다고 분석한 것이다. 사실 일진회가 만들어지고 멸망에 결정적 기여를 하게 된 것도 이 노예근성과 깊이 관련된 것이라고 보았다. 「日本併呑朝鮮記」에는 또 이렇게 기술되어 있다.

일본군이 바야흐로 여러 차례 승리의 위세를 떨치게 되자, 강한 자를 무서워하고 약한 자를 깔보는 저들 한국 백성들은 새로운 주인이 한번 돌아와 주는 것을 다투어 영광으로 여겼다. 병준은 바로 이 심리를 이용하여 호소했다.⁴⁷⁾

전체적으로 보면 다분히 결과론적이고 감정적이고 상투적이며, 결국 중국 계몽을 위한 교훈으로 삼고자 하는 의도가 지배적으로 작용한 과도한 비판이 분명하다.

량치차오의 과도한 인식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논의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인

45) 『清議報』第33冊, 1899.12.22, 『飲冰室文集』之三 참고.

46) 「朝鮮滅亡之原因」, 『飲冰室專集』之二十, 4쪽.

47) 『飲冰室專集』之二十一, 12쪽.

다. 사실 량치차오는 위와 같이 조선 국민성에 대해 비판하는 과정에서 조선을 방문한 적이 전혀 없었으며, 열악한 조선 국민성의 대표라고 지목한 대원군이나 고종을 만나본 적도 없다. 그는 1898년 戊戌變法 실패 후 일본에 망명하여 辛亥革命 직후인 1912년 중국으로 돌아왔으며, 한국인들의 문집 서문으로 써준 「麗韓十家文抄序」를 제외한 「日本併呑朝鮮記」 등 모든 조선 관련 논설들은 이 일본 망명 기간 동안 저술되었다. 계몽주의 사상가인 그는 일본 망명 후 특히 메이지유신으로 형성된 일본의 정치·사회 및 학술·문화를 직접 접하며 상당히 경도되었다. 때문에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자의적이고 목적의식적인 조선·조선인에 대한 인식, 특히 메이지유신 이후의 인식으로부터 일정한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주지하듯이 일본인들은 조선에 대한 자국의 우위를 입증하거나 침탈 야욕을 합리화하기 위한 근거로서 적어도 에도시대(1603-1682)부터 지속적으로 조선의 역사 및 한일관계사를 왜곡해왔다. 메이지시대(1868-1912)에 이르러서는 조선 침탈을 합리화하기 위한 지배이데올로기 및 통치 자료로 삼기 위해 이른바 근대 역사학을 통한 조선사 왜곡 연구가 특히 활발했다.⁴⁸⁾ 여러 왜곡된 역사적 사실과 더불어 조선 국민성에 대한 일본인들의 우월주의적 시각 등은 이른바 침략정책을 뒷받침하는 植民史觀·皇國史觀으로서 일본인들은 물론 심지어 조선인들에게까지 스며들었다. 근대 일본의 '문명'에 경도되고, 조선인들을 위해 시비를 가릴 필요를 느끼지 않던 제삼자 량치차오의 경우도 일본에서 일본의 언론과 출판물 누구보다 많이 접하며 자연히 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론된다. 나아가 자신의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확하지 않은 정보도 그대로 사용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4. 일본의 침략행위 및 한중관계 변화에 대한 인식

앞서 언급했듯이, 일본이 '남의 나라를 도모한 술수'를 살피 교훈으로 삼는 것도

48) 최혜주, 「메이지 시대의 한일관계 인식과 일선동조론」,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37집,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3 참고.

『日本併呑朝鮮記』 저술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였다. 본질에서는 병탄을 위한 술수·책략을 포함한 일본의 침략행위를 바라보는 량치차오의 인식에 대해 짚어보고, 끝으로 일본의 침략으로 인한 한중관계의 변화에 대한 인식에 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당시 동아시아 삼국 관계에 대한 량치차오의 인식의 한 단면이라고 하겠다.

량치차오는 논설 결론 부분에서 일본이 중국과 러시아 등을 제압하고 마침내 조선을 병탄한 데 대해 다음과 같이 총평했다.

40년 동안 일본이 했던 바를 하고자 했던 나라는 한 나라가 아니었다. 그런데 그 열매를 획득한 나라가 어찌서 오직 일본이었는가? 이는 단지 천행이라고만 할 수 없다. 우리가 조선에서 쌓았던 이천년의 위엄 위에 다시 대의명분으로 입했다면, 일의 추세가 순조로워 일본은 우리 만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했을 것이다. 러시아가 그 광활한 영토와 많은 인민들을 가지고 조선을 빼앗아 先聲을 올렸고, 조선에 대해 중시한 것 또한 일본의 몇 배가 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지극히 순조롭지 못한 지경에 처해서도 지극히 끈질긴 힘을 떨쳐 이 두 강자와 패권을 다투었고, 그 특질의 정세는 믿었던 바에 반대가 되었다. 비록 전쟁의 위세를 땀다고도 하지만, 전쟁과 관련된 활동 이외에 일본이 여기에 이르게 된 것은 아마도 또한 道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⁴⁹⁾

남의 나라를 침략·병탄한 행위에 대한 당시 중국 지식인의 인식을 재삼 확인할 수 있다. 일본은 당시 량치차오를 비롯한 중국 지식인들이 열광한 ‘優勝劣敗’의 신화가 위력을 떨치던 냉혹한 제국주의 경쟁의 시대에, 열매를 따먹는 침략행위에 있어서 경쟁자들을 뛰어넘는 방법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자세히 논의하자면, 먼저 량치차오가 보기에 일본이 조선을 도모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군센 의지력(毅力)⁵⁰⁾으로 목표를 세우고 신중하게 책략을 정해 끝까지 추진해가는 것이었다. 정책의 일관성이 첫째요, 불굴의 추진력이 둘째였

49) 『飲冰室專集』之二十一, 20쪽.

50) 량치차오는 『新民說』에서 이상적인 국민성 속성들을 제시한 바 있는데, 그중 하나인 군센 의지력(毅力)이 개인은 물론 국가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속성이라고 역설한 바 있다. (『論毅力』, 『新民叢報』第24號, 1903.1.13, 『飲冰室專集』之四.)

다. 이에 대해 문인답게 다음과 같이 종합적으로 표현했다.

처음에 세운 뜻을 버리지 않고, 마치 강물의 흐름이 그러한 것과 같이 했다. 어떤 때는 고개를 휘감아 돌고, 어떤 때는 땅으로 흘러가고, 어떤 때는 모래와 자갈에 스며들고 내려가, 반드시 바다에 이르고서야 그쳤다. 그 큰일을 위해 굴욕을 참고 백번 꺾여도 돌이키지 않는 기개는 참으로 정성이 지극한 바였고, 귀신도 피하는 것이었다.⁵¹⁾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병탄한 일에 대해 비난·견책한 바도 있지만, 위와 같이 부러운 시각으로 미화해 표현한 대목도 적지 않다. 량치차오는 당시 제국주의에 침략당하는 월남·조선·인도·세르비아 등 세계의 여러 국가와 민족의 불행에 대해 동정과 관심을 표출한 바 있다. 비슷한 처지로 내몰리는 중국인으로서, ‘仁義道德’의 유가적 가치관이 충만한 선비로서, 시대상황과 세계정세에 정통한 선각자로서 가질 수 있는 자연스러운 자세였다. 그러나 그는 약육강식의 엄혹한 국제관계 속에서 고통당하는 약자에 대해 동정에만 그치지 않고 은연중 중화주의·제국주의가 내재된 모순적 세계관을 표출하곤 했다. 예를 들면, 특히 중국이 제국주의 열강의 침탈을 겪는 가운데서도 계속 조선을 속국으로 확인하려고 하고 그 상실을 아쉬워하는 등 자신들을 압박하는 제국주의의 속성을 버리지 못했다.

이러한 인식 하에, 량치차오는 우선 『日本併呑朝鮮記』 서론에서 일본은 교활하여 오래전부터 한반도를 정벌하여 길을 열고자 했다고 기술했다. 일본의 역사기록에 의하면, 이에 漢 獻帝 建安 중기에 神功皇后라는 자가 신라를 정벌하여 군사를 설치했고, 임진왜란 때는 明의 방해가 아니었으면 거의 뜻을 이룰 수도 있었다고 보았다. 이 논설의 『日本併韓記』에서는 일본이 한국을 병탄하려고 도모한 것은 멀리 있는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로부터, 가까이 있는 사이고 다카모리(西郷隆盛)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정리했다.

이 논설에서 량치차오는, 근대 서세동점의 시기에 이르러 조선이 쇠국정책을 고수하며 중국에만 의지하는 가운데, 일본은 메이지 초기 對馬守⁵²⁾ 소(宗)씨를

51) 『飲冰室專集』之二十一, 20쪽.

52) 쓰시마 번주.

내세워 조선에 維新을 권유하기 시작하고, 이어서 메이지 2년(1869)에 다시 外務權大錄 사타 하쿠보(佐田白茅)와 少錄 모리아마 시게루(森山茂)를 사신으로 파견한 것을 필두로 끊임없이 교섭을 시도했으나 조선이 끝내 거부했다고 기술했다. 중요한 것은, 이 때 러시아나 영국 등 다른 열강들은 비슷한 상황에서 방침을 바꿔 上國인 중국 정부와 우선 교섭했으나, 일본은 '한국 조정의 허황된 교만과 무례'를 참으며 절대로 방침을 바꾸지 않았다고 보았다. 량치차오는 이것이 조선을 중국의 세력 범위 밖에 두고자 한 책략이었으며, 40년간 정책이 일관되었고, 처음부터 절대 한 수도 그르치지 않으려고 함으로써 스스로를 속박했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일본이 조선을 도모한 책략은 근 10년만인 1876년 2월 강화도조약 즉 朝日修好條規 12개조로 가시화되었다. 량치차오는 특히 조규 제 1조에, "조선은 자주주의 국가로서 일본국과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라고 한 점에 대해 주목했다. 당시 중국은 평소 일본을 천시했고, 또 일본 스스로는 중국의 속국과 평등해지기를 원한다니 공손하다고 여기기까지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인들이 10년 동안 추구하고 집중한 것은 바로 '自主平等'이라는 문구로, 이 조약이 체결되자 일본인들은 마침내 중국의 주권이 조선에서 행해지지 않게 되었음을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기술했다. 신하의 나라는 외교를 할 수 없는데, 이로부터 조선에 독립국으로서의 외교가 있게 되었으며, 이는 일본의 결정적인 책략이라는 것이다.

량치차오는 이 책략이 결국 청일전쟁의 빌미가 되었고,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마침내 조선에서 중국을 완전히 배제했다고 여겼다. 그의 논의를 바탕으로 간략히 정리하면, 위 강화도조약 이후로 청일전쟁에 이르기까지 조선을 놓고 중국과 일본이 본격적인 쟁탈전을 벌이게 되었는데, 앞서 살펴보았듯이 일본은 초기 중국에 대한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갑신정변의 배후에서 도발자 역할을 했다. 물론 음모를 이루지는 못했지만, 간계로써 결국 1885년 4월 텐진조약을 유도했다. 그 약관의 내용은 "(第一) 중일 양국은 모두 조선 주둔군을 철수시킨다. (第二) 양국은 모두 조선 군대의 교섭을 위해 인원을 파견할 수 없다. (第三) 조선에 만약 내란이 발생하면, 양국 가운데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파병하기 전에 반드시 사전에 상호 통지한다." 등이었다. 이에 대해 량치차오는 "이것은 마치 내가 대대로 노복을 두

어왔는데, 갑자기 손님과 협약하며 말하기를, '나와 손님 모두 이 종을 부리지 맙시다. 손님이 종을 관리하려면 반드시 나에게 청해야 하고, 내가 종을 관리하려고 해도 역시 반드시 손님에게 청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과 같다."⁵³⁾라고 비유함으로써 중화주의·제국주의적 시각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요는 이로 인해 일본은 강화도조약으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가 중국으로 하여금 조선이 중국의 속국이 아님을 인정하게 했고, 중국이 조선을 속국으로 볼 수 있는 한, 일본도 조선을 그들의 속국으로 볼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수를 두었다고 여겼다. 결과적으로 일본은 결국 동학농민운동 무렵 조선에 군대를 주둔시켰고, 내정을 간섭하기 시작했고, 조선에서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게 되었다고 보았다.

량치차오는 또 일본이 기회를 살피는데 지극히 민첩했고, 나아가는 것 또한 지극히 신속했으며, 추호라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절대로 놓쳐서 달아나지 않게 했으니, 이것이 셋째라고 보았다. 나아가 위험을 무릅쓰고 매진하여 다른 나라가 하지 않는 일을 했으니, 이것이 넷째라고 했다. 대표적인 예로는 우정국 사건이나 명성황후 시해사건을 들 수 있는데, 늘 벼락같은 수단을 씀으로써 대응하는 자들로 하여금 어찌 할 바를 모르게 했고, 그로 인해 그 이후의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다른 나라들은 조선의 궁정, 그 중에서도 세력이 있는 곳만을 이용하려고 했지만, 일본은 모든 잠재 세력을 관리했다고 하며, 이것을 다섯째라고 했다. 량치차오의 기술을 인용한다.

일본은 마치 수인이 땅에 흐를 때 들어가지 않는 구멍이 없듯이 어느 방향을 막론하고 다 힘을 썼으며, 또 당파의 異同과 離合에 대해 잘 관찰하고 이해할 수 있었다. 싸움을 붙이기도 하고, 뒤섞기도 하고, 울렸다 내렸다 들었다 놓았다 하여, 변동되어 고정되지 않으며 한결같이 자기 나라에 유리함을 목표로 삼았다.⁵⁴⁾

같은 맥락에서 다른 나라들은 인민 여론의 세력에 대해 뜻을 두지 않았지만,

53) 이상 『飲冰室專集』之二十一, 6쪽.

54) 『飲冰室專集』之二十一, 21쪽.

일본은 이 점에 대해서도 40년 동안 경영하기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결국 일진회 등을 만들어 내어 무형·유형의 교묘한 책략들을 제공받게 되었다고 보았다. 이것을 여섯째라고 했다.

위 다섯째·여섯째는 특히 회유·유화 책략을 사용한 것과 깊이 관련된 것으로 보았다. 예를 들면, 러일이 개전한 후 일본이 이토 히로부미를 특사로 파견하여 고종을 위문하거나, 조선이 동경에 報聘大使로 파견한 황족 李址鎔에 대해 예를 다해 대우하거나, 일본 황태자가 조선을 巡遊한 것 등은 일본인들이 다정하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으로 상당히 중요한 수였다고 주장했다. 또 전세가 유리해지면서 이는 고문정치로 이어지며 일본이 조선 내정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었다고 여겼다. 포츠머스 조약 이후 조선에 통감부를 설치하고, 위협으로 선양하게 하는 등 대세를 확정한 이후에, 일본은 통감 이토를 중심으로 “선심을 쓰는 데 힘씀으로써 한국인들로 하여금 감동하고 스스로 길들여지게 했고”, “그 매서운 기세를 거두고 풀어주며 수용했다.”고 평했다.

이러한 회유책의 연장선상에서 일본은 조선의 친일파를 활용하여 병탄의 마지막 고비를 돌파했다. 량치차오의 논의를 간략히 정리하면, 일본은 조선에서 통감 정치를 시작했지만 국제여론 등을 의식하여 완전히 병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이 상황을 타개하고 강제병합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큰 공을 세운 것은 조선 측의 일진회였다. 일진회는 連署하여 일한합방청원서를 내고 전국을 유세하며 합방의 이로움을 찬양했다. 량치차오는 조선에서 합병론이 무성할 때, 정작 일본은 짐짓 염두에 두지 않는 듯 보였고, 정부 정책에 보조를 맞춰 일본 언론과 국민들도 일체 논란을 벌이지 않았다고 기술하며, 일본의 이러한 규율적인 모습은 중국이 본받을 점이라고 하기도 했다.

아울러 다른 나라들은 오직 조선의 정치 세력에만 신경을 썼지만, 일본은 경제 세력에도 쉬지 않고 신경을 썼으니, 이것이 일곱째라고 보았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조선을 도모한 인물이 袁世凱나 베베르 같이 한둘에 그쳤지만, 일본은 여러 방면에 걸쳐 군대 조직과 같이 상하 임무를 나누어 함께 달렸고, 그 위에 기발하게 의표를 찌르는 유격편대 같은 것이 있어서 승리할 수 있었다고 보았다. 이것이 여

뒹쨌라고 했다.

『日本併呑朝鮮記』의 결론 마지막 부분은 일본의 침략 행위를 바라보는 량치차오의 궁극적 인식을 잘 나타내고 있다.

優勝劣敗가 거짓이 아님을 믿으면, 성공은 자연히 있게 된다. 무릇 그들은 조선에서 이미 승리하고 돌아왔다. 저들이 優勝의 기술을 지니고, 마음으로 도모하고 눈으로 집중하는 것이 어찌 조선 하나 뿐이겠는가? 이에 나는 조선의 멸망을 보며 축지도 않은데 전율을 느낀다.⁵⁵⁾

역시 진화론에 입각한 민족제국주의의 경쟁논리를 금과옥조로 수용하며 일본의 침략행위와 조선의 불행을 평가하고, 아울러 이를 그저 중국의 계몽을 위한 경계로 삼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역시 시대를 선도한 선각자답지 못한 편협한 시각이 느껴진다.

한편 일본이 조선을 도모하면서 한중관계도 자연히 큰 변화가 발생했다. 중국인 량치차오는 이 문제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논설 여러 곳에서 나름대로의 감정과 인식을 피력했다. 특히 이 문제는 논설의 결론 뒤 ‘附: 朝鮮對我國關係之變遷’ 부분에서 별도로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대체로 보아 량치차오는 일반적인 역사 기술이나 중국 관련 역사 기술을 하는 경우에는 자신을 ‘新史氏’ 즉 ‘近代的 史家’로 표현하고, 외국의 역사를 기술하는 경우는 ‘外史氏’ 즉 ‘外國 史家’로 표현하곤 했다. 『日本併呑朝鮮記』의 경우에도 서론과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의 시작을 각각 ‘外史氏曰’로 했다. 외국인 또는 국외자의 객관적 입장을 표현하겠다는 의미로 여겨진다. 하지만 실제 내용은 그렇지 않았다. 앞서 인용했듯이 사실 결론 부분에서, 중국이 조선에서 쌓은 이천년의 위업 위에 다시 대의명분으로 임했다면 일본은 중국의 만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했을 것이라며 중화제국주의 입장에서의 상실감을 감추지 않았고, 본문 곳곳에서 중국과 조선의 이른바 복속 관계가 깨지는 상황에 대한 서운함을 그대로 드러냈다.⁵⁶⁾

55) 『飲冰室專集』之二十一, 21쪽.

56) 같은 맥락에서, 『朝鮮亡國史略』 서두에서 자신을 ‘그(조선)와 친숙의 관계를 가진 이’로 자리매김 한 것이다.

량치차오는 여러 저작에서 ‘箕子朝鮮’을 기정사실화 한 바 있고,⁵⁷⁾ 『日本併呑朝鮮記』 서론에서도 “조선은 예로부터 우리에게 복속했는데, 漢代에는 일찍이 그 일부를 군현으로 거두었었고, 그 이후로도 예속은 그치지 않았다.”⁵⁸⁾라고 복속관계를 강조하는 것으로부터 논의를 전개하기 시작했다. 다만 조선이 이전에 고구려·백제·신라 삼국으로 나뉘어져 있다가 통일되어 고려가 되었다고 분명히 기술함으로써 오늘날의 동북공정과 같은 억지는 부리지 않았다. 이후 임진왜란 시기에는 명의 원조로 멸망을 면했고, 청이 흥성하게 되면서는 다시 가장 먼저 신하로서 복속했으며 중국도 관대히 대했다고 주장했다.

량치차오는 『日本併呑朝鮮記』의 침부 논설에 해당하는 ‘附：朝鮮對我國關係之變遷’ 부분⁵⁹⁾에서 ‘城下盟’ 즉 조선의 청에 대한 복속으로부터 시작하여 곧바로 2백여 년 뒤 조선과 중국의 관계가 급변하게 된 상황에 대해 세밀하게 논의했다. 우선 그는 1866년 대원군이 섭정하던 시기에 조선 정부가 기독교도들을 학살하고 프랑스 주교감독까지 살해했는데, 프랑스가 그 죄를 묻고자 上國인 중국에 따졌을 때, 중국정부는 허물 뒤집어쓰는 것을 꺼려하여 “우리와 조선은 결코 관계가 없다.”라고 했고, 이에 프랑스 제독 로즈(羅士)가 군함을 이끌고 강화로 들어가는 사건이 발생했으니, 이것이 중국 정책 실패의 제 1착이라고 보았다.

량치차오는 같은 해 또 유사한 사건이 있었음도 기술했다. 즉 미국의 상선 하나가 대동강 입구에서 침몰했다. 조선 정부는 선박을 불태우고 선원을 죽였다. 1870년, 미국인들이 역시 중국 정부에 따졌는데, 중국 정부는 역시 프랑스 때와 같이 했다. 이에 미국 제독 로저스(羅渣士)가 군함을 이끌고 한성으로 들어가는 일이 발생했으니, 중국 정책 실패의 제 2착이라고 보았다.

1875년, 일본 상선이 조선 영해에 들어오자, 강화도 사람들이 이를 포격했다. 일본정부는 모리 아리노리(森有禮)를 북경에 사신으로 보내고, 구로다 기요타카(黒田清隆)에게 군함 두 척을 이끌고 한성으로 가게 했다. 모리 아리노리가 도착

57) 조선을 기자의 후예로 단정적으로 표현했는데, 예를 들면 「朝鮮哀詞」는 첫 수에서부터 “哀哀箕子祀.”라고 하고, 「秋風斷藤曲」에서도 “遺民哀哀箕子孫，筆路撥禳開三韓.”라고 표현한 바 있다.

58) 『飲冰室專集』之二十一, 2쪽.

59) 이하 별도 주석 없는 인용문은 『飲冰室專集』之二十一, 23-27쪽에서 인용.

하자 중국 정부는 역시 “조선의 일은 우리나라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에 그 해 12월, 일본이 조선과 강화도조약을 맺었으니, 중국 정책 실패의 제 3차 즉 관계 변화의 세 번째 계기라고 보았다. 보호국은 다른 나라와 조약을 체결할 수 없는데, 중국이 이 특권을 조선에게 주어, 사실상 조선으로 하여금 보호국의 위치를 인정하지 않게 했다는 것이다.

량치차오는 이와 관련하여 본문에서는 『禮記』의 ‘남의 신하 된 자에게는 외교가 없으니, 감히 두 임금을 섬기지 못한다.’라는 문구를 인용하며, 조선은 중국에게 신하였는데 그 외교가 이것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안타까워했다. 간략히 분석하자면, 조규 제 1조에 “조선은 자주국으로서 일본국과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⁶⁰⁾라고 한 것에 대해 일본의 교활한 책략 여부를 떠나 당시 조선 사람들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기술하면서 못내 아쉬운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중화주의의 여운인지 부차적 제국주의의 서두인지, 중국은 제국주의 열강의 침탈로 인해 자신도 부득이 서구 민족국가들 중심의 세계질서 속으로 편입되면서도 여전히 조선을 속국으로 재확인하려고 했음을 량치차오가 대변해주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외교관 黃遵憲이 1880년 발표한 이 문제에 관한 대표 저술 『朝鮮策略』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黃遵憲은 량치차오와 같은 유신파 선배 시인이기도 하여, 시계혁명의 모범으로 내세우기도 했고 문학적·정치적으로 긴밀히 교류하며 큰 영향을 받은 인물이다.⁶¹⁾ 량치차오도 중국인의 시각에서 속절없이 속국을 상실해가는 중국정부의 무능에 대해 책망하고, 나아가 중국의 미래를 염려하는 중화주의·민족주의·제국주의의 입장에서 이 논설을 저술했다고 할 수 있다.

자의든 타의든 이렇게 중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조선은 1877년 이후 미국과의 조약에 이어 영국·독일·러시아·프랑스·이탈리아 등 여러 나라와 조약을 맺었다. 조선이 미국 등과 조약을 체결할 때, 李鴻章이 조선에 대해 조약 가운데 특별히 조선이 중국의 속국임을 선언하는 조항을 넣으라고 요구했으나, 상

60) 『飲冰室專集』之二十一, 4쪽.

61) 예를 들어 량치차오는 『飲冰室詩話』 총 204則 중 37個則에서 黃遵憲의 시에 대해 찬양했고, 시계혁명을 전개하는 과정에서도 그의 의견을 적극 수용했다. (舒蕪校點, 『飲冰室詩話』, 『新民叢報』 第4-95號, 1902.02.15.-1907.10.01., 北京人民文學出版社, 1982 참고.)

대국들의 반대로 이루어지 않았고, 조선 측에서 상대국들에게 별도 공문을 보내 부용임을 밝히라고 요구했으나 무의미한 것이었다고 여겼다. 이것이 중국 정책 실패의 제 4착, 변화의 제 4계기라고 보았다.

량치차오는 앞의 네 계기를 총괄한 다섯 번째 계기는 바로 텐진조약이라고 보았다. 조약문 중 관건은 “이후 조선의 유사시, 중국이 군대를 파견할 때에는 먼저 일본에 통지하고, 일본이 파병할 때도 역시 반드시 중국에 통지한다.”라고 한 것인데, 이로써 한중관계에 결정적인 변동이 생기게 되었다고 여겼다. 이것은 조선이 중일 공동 보호국임을 명확히 인정하는 것으로, 조선은 光緒 원년(1875) 이전에 순전히 중국의 보호국이었다가, 光緒 31년(1905) 이후 순전히 일본의 보호국이 되었고, 그 사이에 과도시대가 있었는데, 그 시대의 관건은 1885년의 텐진조약이었다고 본 것이다. 텐진조약은 표면적으로는 단순히 조선으로 하여금 중일 공동보호의 위치에 있게 했으나, 결국 청일전쟁의 빌미가 되었고, 개전 이후 조선과 중국은 결국 은혜와 의리가 단절되었다고 기술했다. 즉 개전 5일 후, 이른바 日韓協定이 체결되었는데, 그 제 1조에 “본 조약의 체결은 오직 조선의 독립, 일본과 조선의 이익을 유지하기 위함이며, 대저 조선에 있는 청군은 당연히 국경 밖으로 축출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로써 조선과 중국은 관계를 단절시키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또 개전 반달 후(양력 8월 15일), 조선 외무대신 金允植은 각국에 통첩하여, 조선과 중국이 이전에 체결한 조약은 일체 파기한다고 하고, 다음 날, 다시 중국인의 치외법권을 철회하는 조칙을 내렸는데, 이로부터 조선은 일본을 따라 중국과 적국이 되었다고 다소 감정적인 표현을 했다.

끝으로 량치차오의 전체 마무리는 다음과 같다. 중국은 光緒 21년(1895) 2월 청일전쟁 패전 후 시모노세키조약(馬關條約)을 맺었다. 그 조약문 제 1조에는 “중국은 조선이 완전무결한 독립자주국임을 확인한다. 이 이전의 貢獻 등 典禮와 자주독립의 실질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것은 전부 폐지한다.”라고 조선에서의 중국 세력 완전 배제를 천명했다. 이에 고종은 바로 종묘에 대한 맹세문을 게시했으나, 그 제 1조는 “청나라에 의지하고 따르는 사상을 단절하고, 자주독립의 기초를 확립한다.”라는 것이다. 이로써 중국은 徐壽朋을 조선 주재 공사로서 파견하여, 단

순히 평등국의 지위에 섰으며, 조선 왕 또한 황제에 올랐다고 서운함과 조롱의 심정을 표현했다. 끝내 중화주의의 꿈에서 깨어 진정 시대를 초월한 선각자의 모습은 보여주지 않았다. 그의 마지막 구절에서 말과는 달리 화려했던 揚州의 꿈을 깨지 못하는 일종의 한계가 느껴진다.

아! 십년 만에 문득 揚州의 꿈에서 깨어나 보니, 靑樓에 박정한 사내라는 이름만 얻었구나.⁶²⁾ 조선이 중국을 저버렸고, 중국이 조선을 저버렸다. 눈을 크게 뜨고 프랑스와 한국이 난을 벌인 이후부터 중국과 일본이 강화하기 이전까지의 교섭사를 살펴보노라니 뜨거운 눈물이 속눈썹에 흐름을 금하지 못하겠다.⁶³⁾

5. 결론

중국 근대 계몽주의 대표 지식인 량치차오는 조선과 관련하여서도 십여 종의 저술을 남겼다. 이 저술들은 주로 1904년부터 1911년에 이르는 일제의 조선 강점 완성 단계에 발표되었으며, 그중에서도 특히 「朝鮮亡國史略」(1904.9)·「過去一年間世界大事記第六朝鮮之亡國」(1906.2)·「朝鮮滅亡之原因」(1910.9)·「日本併吞朝鮮記」(1910.9) 등 멸망 문제를 중심으로 조선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기술한 것이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중국인들을 自強으로 유도하기 위한 계몽적 의도에서 출발한 新史學의 입장에서 중국을 위해 조선의 문제를 냉정히 분석하고 또 과장되게 표현하기도 했다. 량치차오의 논설문들에서 그러한 경향은 매우 두드러진 것이었으며, 심지어 그의 「秋風斷藤曲」(1909.10?)·「朝鮮哀詞」(1910.9)와 같은 조선 관련 詩歌들도 문학을 통해 같은 목적을 추구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조선의 멸망에 대한 史的 記述로 가장 중요한 것은 「日本併吞朝鮮記」이다. 한일병합 후 1910년 9월 14일 『國風報』에 발표된 논설로, 사실상 「朝鮮亡國史略」이나 「過去一年間世界大事記第六朝鮮之亡國」 등을 종합한 위에, 조선

62) “十年一覺揚州夢，贏得靑樓薄倖名。”(杜牧의 시 「遣懷」에 나오는 구절)

63) 『飲冰室專集』之二十一，27쪽.

의 대중국 관계 변천 문제 등까지 부수적으로 다루어 가장 자세한 기록으로 평가할 수 있다.

「日本併呑朝鮮記」에서는 우선 논설 서두에서 조선 멸망의 과정을 단계별로 시기 구분하여 나뉘대로 체계적인 분석이 되도록 했다. 먼저 조선의 입장에서 ①중국에 예속되었던 시대, ②명목상 독립했던 시대, ③일본에 예속되었던 시대, ④일본에 병탄된 시대로 나누었다. 다음으로 이를 다시 일본의 입장에서 ①중국과 조선을 다투던 시대, ②러시아와 조선을 다투던 시대, ③조선을 보호국으로 삼게 된 시대, ④조선을 병탄한 시대로 나누었는데, 입장은 다르지만 두 과정의 네 시대는 분계선을 대략 같이 했다. 그리고 각 시기는 다시 일본이 조선을 도모하는 과정상의 흐름과 관건에 따라 다시 두세 단계로 나누어 설명했다. 적어도 일본 망명(1898.9) 이후 십여 년간 지속적으로 큰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았음을 알 수 있다.

이 논설에 보이는 량치차오의 조선에 대한 인식은 크게 조선의 멸망에 대한 동정, 중화사상 및 제국주의적 입장에서 속국 이탈로 인한 상실감과 서운함, 경쟁자인 일본의 침략행위에 대한 비난과 부러움, 멸망의 근원으로 본 조선의 지배층 및 국민성에 대한 비판 등등 복잡한 감정과 인식으로 나타났으며, 궁극적으로는 조선을 중국 계몽의 교훈으로 삼고자 함이 최상층의 목적의식으로 자리하고 있다.

량치차오는 이 논설에서 전통적인 중화주의를 견지한 채 사회진화론에 입각한 서구의 민족제국주의를 단순히 수용하고 조선이라는 타자를 거울삼으려는 의식하에 일본의 조선 병탄 즉 조선의 멸망이라는 동전의 양면을 장기간에 걸쳐 살펴보고 기술했다. 때문에 조선 멸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서 국민성의 열악함을 거론하는 등등에서 지나치게 주관적이고 편파적인 논리를 전개했다. 개조해야 할 중국 국민성을 환기시킨 것으로 이해된다. 다만 이것은 대체로 일본 망명 시기에 언론 및 저술활동을 하며 접한 일본인들의 왜곡된 조선관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량치차오가 구체적으로 일본 측의 어떠한 자료들로부터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한 전문적이고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아무튼 량치차오의 지나친 비판은 그 의도와 인식의 형성 배경을 살펴볼 때 순수하고 정당한 것이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국가와 민족의

존망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도 조선의 조야가 안일과 무능에 머물며 냉혹한 세계사의 조류에 대응하지 못했던 점에 대한 비판으로서는 냉철히 되짚어볼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參考文獻〉

- 梁啓超, 『飲冰室合集』, 北京, 北京中華書局, 1936.
- 梁啓超著, 舒蕪校點, 『飲冰室詩話』, 北京, 北京人民文學出版社, 1982.
- 梁啓超著, 夏曉虹輯, 『飲冰室合集集外文』,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5.
- 李國俊, 『梁啓超著述繫年』, 上海, 復旦大學出版社, 1986.
- 汪松濤, 『梁啓超詩詞全注』, 廣州, 廣東高等教育出版社, 1998.
- 梁啓超 著, 최형욱 編譯, 『량치차오, 조선의 망국을 기록하다』, 파주, 글항아리, 2014.
- 劉明鍾, 「梁啓超의 『朝鮮亡國史略』에 대한 評述」, 『동양철학』 제1집, 서울, 한국동양철학회, 1990.
- 錢東炫, 「清末 梁啓超의 大韓帝國期 韓國 認識」, 『中國史研究』 제34집, 서울, 중국사학회, 2005.
- 최형욱, 「조선의 梁啓超 수용과 梁啓超의 조선에 대한 인식」, 『韓國學論集』 제45집, 서울,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9.
- 최형욱, 「梁啓超의 秋風斷藤曲 探究」, 『동아시아문화연구』 제49집, 서울,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2011.
- 최형욱, 「梁啓超의 朝鮮哀詞五律24首 探究」, 『한국언어문화』 제49집, 서울, 한양대학교 한국언어문화학회, 2012.
- 최형욱, 「梁啓超의 中國國民性論 및 朝鮮國民性 批判 探究」, 『외국학연구』 제24집, 서울, 중앙대학교 외국학연구소, 2013.
- 최혜주, 「메이지 시대의 한일관계 인식과 일선동조론」,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37집, 서울,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3.

〈Abstract〉

A Study on Liang Qi-Chao's "Record of Japan and Chosun Annexation"

Liang Qi-Chao who took the led of the drastic transitional period of modern China played important roles not only as a representative theoretician but also as an activist among the intellectuals of revitalizing reforms and patriotic enlightenment. Moreover, his innovative efforts in the fields of politics, media, academia, education, and literature had great influences on the intellectuals of China as well as Chosun around the time. Many Korean progressive intellectuals in the transitional period of Chosun at risk of the state of the fall of Chosun Dynasty attempted to develop their understanding of western academic ideologies through Liang Qi-Chao's publications and thus to establish systematic theories for saving the nation. Meanwhile, Liang Qi-Chao also had great recognitions of situations in Chosun while paying special attentions and sought to take some lessons learned from Chosun for China, which resulted in his development of interactive relationships between the two.

Based on these recognitions and as a result of the close examinations of Liang Qi-Chao's publications, Chosun as to him was a special otherness that might reflect China in comparison with the Western and so to speak, a miserable neighboring nation that China had close kinships. In this perspective, he kept the record of the declining history of Chosun in order for Chinese imperialism to avoid Chinese possible national and ethnic conflict and crisis, under the recognition that China would be placed in the destiny like Chosun in the near future. In his position, it was a great shame that Chosun which was subject to Chinese power tried to escape from the power. He also blamed the Chinese government for its incompetency that led to inevitable loss of its control over Chosun. Furthermore, Liang Qi-Chao composed poetry and prose in relation to Chosun in the position of Sinocentrism, nationalism, imperialism, and enlightenment.

The major ten publications of Liang Qi-Chao had been released between 1904 and 1911 in the period in which Japan had come to complete its control and authority over Chosun. Among them, in particular, 「A brief history of the fall of the Chosun Dynasty」

(1904. 9), 『The fall of Chosun, vol. 6 in the collection of world history within the past one year,』 (1906. 2), 『The reasons for the decline of Chosun,』 (1910. 9) had been written for Chinese special attention to and recognition of the decline and the fall of Chosun Dynasty. The purposes of these books lied in expanding Chinese power and thus enlightening the Chinese public. In other words, the books aimed to analyze the problems with Chosun and through exaggerating expressions to raise Chinese public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national power.

Out of his publications, the most important work on the fall of Chosun involved Liang Qi-Chao's record of Japan and Chosun Annexation. The book illustrated the processes of the fall of Chosun, which was divided into two parts in the introductory chapter. The first part described the historical era from the perspective of Chosun, which was classified into 1) the period of Chosun subject to China, 2) the period of nominal independence of Chosun, 3) the period of Chosun subject to Japan, and 4) the period of Japan and Chosun annexation. The second part illustrated the era from the perspective of Japan, which was grouped into 1) the period of the China-Japan dispute over Chosun, 2) the period of the Russia-Japan dispute over Chosun, 3) Chosun as a Japanese protectorate, and 4) the period of Japan and Chosun annexation.

His recognition in the book, The Record of Japan and Chosun Annexation represented his sympathy on the fall of Chosun, the regret about the loss of Chosun as a Chinese tributary nation in the views of the Sinocentrism and imperialism, the censure on the force of Japan as a rival, and his criticism on the national characteristics and the political elites of Chosun as a fundamental reason for the fall of Chosun. His ultimate goal to keep the record of the fall of Chosun was to give lessons for the enlightenment of China on the basis of his desperate recognition of Chinese future which could be similar to Chosun's case. In particular, his ideas behind the book were developed based on his excessively subjective and biased thoughts about Chosun because he believed that the fall of Chosun was attributed to Chosun's inferior national traits. His perspectives can be interpreted that he intended to enlighten Chinese public and reorganize Chinese national characteristics or directly accepted Japanese manipulative perspectives about Chosun.

Liang Qi-Chao's excessive criticism about Chosun can not be considered as

appropriate constructive criticism due to his subjective and biased perspectives. However, his criticism may have some value as a considerable criticism about the people from the emperor to ordinary people of Chosun at that time who were incompetent to appropriately react to the historical changes worldwide and were incapable of getting out of their comfort zone in many aspects of their lives.

Key Words : Liang Qi-Chao, The Record of Japan and Chosun Annexation, the fall of Chosun Dynasty, Enlightenment, Sinocentrism, Nationalism

이 논문은 2015년 4월 13일에 접수되어 2015년 5월 10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5년 5월 15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